

# 석유화학, 3/4분기까지 호황 지속

## 유진증권, 세계 13곳에서 잇따라 사고 발생 ... 전반적 수급타이트

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세계적으로 석유화학공장의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해 석유화학 경기가 3/4분기까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6월12일 발표했다.

유영국 애널리스트는 “중국의 Sinopec Maoming, Waxi Xingda 등 최근 2주간 중국, 인디아, 타이완 등 전세계 석유화학공장 13곳에서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”며 “예상치 못한 석유화학공장의 연이은 사고로 인해 PE(Polyethylene), PP(Polypropylene), ABS(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), EPS(Expandable Polystyrene) 등 폴리머 제품과 방향족, 가성소다 등 전반적인 석화학 제품군이 당분간 타이트한 수급을 보일 것”이라고 예상했다.

또 “당초 하반기 이후 석유화학 업황의 둔화를 예상했으나 최근 잇따른 사고의 영향으로 3/4분기까지 업황 호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”고 말했다.

이에 따라 유진투자증권은 LG화학의 목표주가를 11만5000원에서 12만2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투자의견을 <보유>로 유지했으며, 한화석유화학은 1만5000원은 유지하되 투자의견을 <보유>에서 <매수>로 높였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6/11>